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복음으로 여는 유다서-

민수기 16:1-3, 유다서 1:3-4

정윤돈 목사님

* **민16:1-3** 레위의 증손 고탓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리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이백오십 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 **유1:3-4**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편지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기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신중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을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를 거역하고 대적한 고리와 250명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멸망당했다. 유다 사도도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한 징계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즉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만이 걸어 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 인생에 다 이해되고 수용되는 문제만 오는 게 아니다. 저는 요새 국가적인 문제, 교단의 문제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 속에서 실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왜 문제를 만났을 때 깨닫고 초월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존재, 성삼위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쉽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든 마찬가지다. 문제를 보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기준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성경을 봐도 그렇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도 얼마든지 약점이 있었다. 고리는 250명을 데리고 거스르는데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250명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입장은 윤리, 도덕이나 바르게 사는 게 아니다. 아론과 모세도 하나님을 떠나고 윤리, 도덕적,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다. 복음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사람마다 바른 미래에 대해 생각이 다를 다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400년 전에도 비슷하게 있었다. 17세기에도 의회파와 왕당파가 갈등했다. 교회중심, 왕 중심인 사람들이 갈등했다. 복음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데에도 3백 년이 걸렸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2백 년 동안 순교하고 죽었다. 로마가톨릭은 천 년 동안 잘못된 길을 가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 개신교와 로마가톨릭은 30년 동안 전쟁을 했다. 진리를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이 복음과 진리를 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잘못된 신앙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도 개혁하지 않으면 로마가톨릭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 개혁은 Reformation, 원래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고백서, 도르트 신조의 칼빈 5대 강론 등을 통해 장로교 신학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우리 교단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 바탕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 유럽 교회와 미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교중심, 복음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Reformed Church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은 유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말씀이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표현은 특이한 표현이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자신을 아무개의 아들로 소개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아무개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글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유다는 자신보다 야고보가 신자들 사이에서 더 잘 알려졌기 때문에 야고보의 이름 아래 자신을 나타내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초대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기도 하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의 형제까지도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고 안나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가 메시아인줄 알았지만 형제는 형이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았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남동생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1.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야고보와 유다는 모두 교회를 지키는 사역을 했다. 공통점이 있다. 예수님의 형제로서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사역을 했다. 당시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부도덕한 행실로 교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1)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건은 ‘오직 예수하는 것이다. 옷을 거룩하게 입거나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허한 상태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천주교는 적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있었다. 천주교는 오직 예수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기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종교화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 우리의 전통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오직 예수와 오직 전도, 선교를 강화할 뿐이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교회는 문을 닫는다. 제양과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와 나라들을 축복하신다. 여러분이 예배집중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시실 것이다. 여러분의 후대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어느 현장에 있는 축복받는다. 능력과 관계없다. 강단 흐름을 따르고 훈련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린다.

(2)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도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칭교도’는 거룩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노력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성실히 일하도록 가르쳤다. 여러분은 도둑질하거나 탐하지 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다. 내 수준을 알아야 한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게 욕심이다. 그 죄를 낳는다. 그 칭교도들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이다. 성경을 따르며 성실함으로 자본주의나 산업혁명, 과학발전 등을 가져왔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하라. 그 칭교도들이 다스리고 축복받는 길이다.

(3) 그들은 1장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그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었다.

(4) 1장 8절에 보면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했다. 우리도 날마다 개혁해야 한다. 우리가 남의 죄를 뭐라 할 게 아니다.

(5) 그들의 또 다른 악행은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대항한 것이었다. 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6)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고리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리와 그를 추종한 250명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를 대항하는 교만한 태도는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발이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른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거스르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다르다. 존중, 존경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은 제자를 만들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다. 제자는 빠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다. 위로와 칭찬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때문이다. 제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이단과는 싸우는 길을 걸어간다.

(7) 그들은 발람을 본받아 재물을 얻고자 부유한 교인들에게 아첨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리진 길로 물려 갔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것을 이익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가장인 남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자칫 돈벌레가 될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 분수에 맞게 성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주신다.

(8)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유다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소 괴롭히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목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① “애찬에 암초”라고 했다. 애찬(사랑의 잔치)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누던 식사와 교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식사시간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믿음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였다. 암초는 물 밑에 숨어 있다가 배를 파손시키는 위험한 존재이다. 거짓 교사들은 공동체 안에 숨어들어 교제를 망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로 비유된다. ② “자기 목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는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이용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라는 민주적인 정치체계를 만들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더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그릇, 시스템이 필요하다. ③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은 비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없으니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영적 유익이나 생명을 주지 못한다. 바람에 불려간다는 말은 그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목적 없이 떠도는 모습을 뜻한다. 우리는 복음, 구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나침반이 있어야 풍랑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올바른 교리가 없으면 길을 잃는다. ④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것이요”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지만, 이 나무는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삶이 아무런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음을 나타낸다. 전도의 열매, 선도의 열매에 관심이 없다.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다’는 말은 이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었으며, 심판을 통해 완전히 멸망당할 운명임을 보여준다. ⑤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의 거친 파도는 끊임없이 요동치며 거품을 드러낸다. 거짓 교사들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행동하며, 자신의 교만과 죄를 드러낸다. ‘자기 수치의 거품’은 그들의 악한 행위와 교만은 결국 드러나며, 그들의 죄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게 된다는 의미이다. ⑥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떠다니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은 본래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방향을 제시하지만, 이 ‘유리하는 별’은 궤도를 벗어나 방향한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혼란을 주며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 것을 뜻한다. 이들은 교리와 신학이 없어 기준 없이 흔들리는 이단들을 보여준다. ⑦ ‘캄캄한 흑암’은 이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어둠과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고리의 집단처럼 거짓 교사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절대적 이유를 알려 주는 것이다.

2. 유다서를 통하여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와 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미리 한 말’은 성경적 진리, 교리를 말한다. 구원의 복음과 삶의 복음을 말한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온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알려 주시고 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2)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육 간에 흠과 티가 없도록 지켜야 한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흠과 티 없이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래야 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세상 문화를 따라 타락하고 중독 속에 빠지면 더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 로마가 복음화된 것도 다 타락했지만 기독교인 노예들이 거룩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다. 거룩함 때문이다. 청교도의 신앙이 그것이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도전해야 할 절대목표이고 방향이다.

(3)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생긴다. 원수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만 왔다갔다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현장에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과 후대들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이 일어날 줄 믿는다.

(4) 1장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은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 마약하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 가정이 깨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생각한다. 어떤 중독자와 범죄자여도 어떻게 살릴지 생각한다. 이렇게 아직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다락방 복음사역 현장을 지속할 수 있다.

(5) 1장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홀히 여기라, 살려내라는 말이다. 복음의 제자들은 범죄자, 창녀, 마약중독자들까지도 구원시키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1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절대망대, 치유의 절대망대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교회, 지교회 사역은 복음가진 우리들만이 할 수 있다.

(6)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에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천국)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거침없이 도전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의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는다.

오늘은 신앙의 발판 10가지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 성령의 역사, 우리의 기준은 성경,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는 시한부인생, 천국 소망, 복음 전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자.

끝으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을 통하여 참 복음과 참 진리와 참 교회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유다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유다처럼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지키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